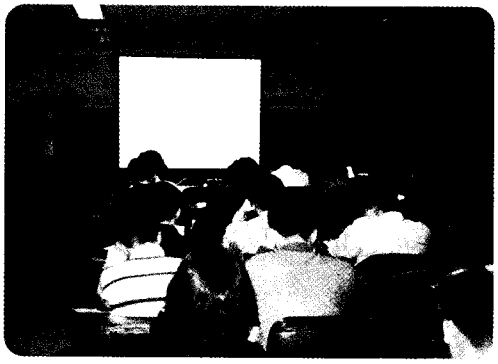
seminar

# 세계가 주목하는
# SCM의 신기술 RFID



한국 SCM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한국유통정보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SCM신기술-RFID와 쿠폰' 세미나가 지난 12월 4일 유통물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한 이근호 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RFID 비즈니스 동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VDC에 따르면 지난해 RFID 세계시장(시스템, 솔루션, IC칩 포함)은 9억 6,000만 달러 규모에 이르며 2005년에는 30억 달러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소프트웨어가 73%, 하드웨어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IC태그 시장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VDC는 이 시장이 매년 22.6%씩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망 관리에서의 효율증가에 대한 경제적 이점은 유럽 및 미국의 공급망에서의 손실(Shrinkage)을 살펴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총 매출액 대비 손실액은 약 2%로 유럽은 약 130억 달러, 미국은 32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손실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원가 및 경비절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총 경상이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업 이익률이 2%인 기업에서 물류비용의 1억원의 감소는 50억원의 매출증가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RF-ID태그의 시장은 2002년 2028만매, 53.6억엔의 규모에서 2005년에는 1,7564만매, 101.5억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IT분야의 침체를 깨는 기술서비스로 무선 IC태그가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차세대 바코드 시스템인 RFID는 생산자/물류 · 배달/소매로 코드가 동일하고 개별 물품 관리와 물품 핸들링의 자동화 및 환경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다는 이점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RFID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공개에 대한 수위조절과 규제 등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유통정보센터는 RFID를 통한 유통물류 경영 효율성의 획기적인 개선과 국제표준 제정시 국내 유통물류업계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효과로 유통 · 물류산업의 효율개선을 가져오고 기업내/기업간 정보 동기화를 통한 SCM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류